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70원 상승한 1,362.60원에 마감
------	------------------------------

2일 환율은 전일대비 7.70원 상승한 1,362.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10원 상승한 1,356.00원에 개장했다. 미국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긴축 우려로 개장과 동시에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출발하였으나, 이후 1,350원 중반대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역외를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의 유입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1,363.00원에서 연고점을 경신하였다. 장은 1,362.60원으로 마감하였으며, 장 중 변동폭은 10.50원 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1.6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56.00	1363.00	1352.50	1362.60	1356.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67.57	973.53	965.38	972.7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7.38	1367.16	1346.40	1355.9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9	-2.43	-6.94	-14.96
	결제환율(수입)	-0.27	-1.43	-4.83	-11.9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유로존 에너지 위기 우려로 달러 강세... 1,360원 중후반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2.60원) 대비 0.45원 상승한 1,362.40원에서 최종 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러시아의 가스관 폐쇄 연장으로 유럽지역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고조되어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며 상승이 예상된다. 러시아가 당초 3일 재개하기로 했던 가스관을 지속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달러가 재차 반등하고 유로화는 패리티 아래로 떨어

어졌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보하면서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점 및 글로벌 위험선호 부진에 따른 증시 외국인 순매도 물량도 금일 원화 약세에 추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네고 유입 및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심 고조는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0.00 ~ 137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30.4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45원 ↑
	■ 美 다우지수 : 31318.44, -337.98p(-1.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2.5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